

여성의 해외 거주 경험과 탈경계적 공간 인식

-손장순과 김지원의 유학·이민 서사를 중심으로-

임정연*

차례

1. 유학과 이민의 젠더성
2. 동일성/타자성의 차이와 해체, 표류 공간으로서의 파리
3. 집(home)/집없음(homeless)의 경계 넘기, 부재 공간으로서의 뉴욕
4. 이주와 거주의 탈경계성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해외 거주 경험에 기입된 여성의 공간 인식 방법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손장순과 김지원의 소설에 나타난 유학·이민 체험이 파리와 뉴욕의 장소성과 상호 결합하는 방식 및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손장순과 김지원은 배타적 남성 공간의 안과 밖, 중심과 주변을 동시에 점유하는 여성들을 통해 이국 도시를 탈경계적이고 역설적인 공간으로 탐색해간다.

손장순은 자유와 관용, 예술과 문학, 낭만과 매혹이라는 ‘파리’의 장소 표상을 해체한 지점에서 유학 모티프와 유학생 세대의 초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 손장순 소설은 ‘한국인’ ‘여성’ ‘유학생’이라는 세 가지 범주가 중첩되는 지점에서 성과 연애의 문제를 통해 인종, 민족, 젠더 간에 잠재되었던 충돌과 차이를 드러낸다. 그리고 이 ‘차이’를 또 다른 이주의 동력으로 타진하면서 파리를 탈중심적 ‘표류공간’으로 형상화한다.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김지원 소설에서 여성인물들의 존재 탐색과정은 ‘뉴욕’이라는 장소가 제공하는 삶의 양식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김지원은 남성들과 친밀한 관계 맺기에 실패한 여성들을 통해 뉴욕이라는 기표를 일상적인 무의미의 기호로 환치시킴으로써 뉴욕을 침묵과 추방, 결핍과 상실의 ‘부재 공간’으로 제시한다. 이처럼 모국과 이국, 집의 안과 밖, 그 어느 공간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여성의 모습은 새로운 이주, 혹은 경계 넘나듦의 삶의 모델로서 유목민적 주체의 탄생을 시사한다.

이처럼 손장순과 김지원 소설에서 유학과 이민은 여성들의 젠더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파리와 뉴욕은 거주와 이주 사이의 경계 공간으로 재표상된다. 손장순과 김지원은 경계 공간에서 여성들의 젠더적 삶의 양식을 형상화함으로써 여성이 모든 장소에서 실존적 외부성을 체험하고 탈장소성을 실천하는 존재란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핵심어 : 해외 거주, 유학, 이민, 젠더 공간, 표류 공간, 부재 공간, 탈경계성, 탈장소성

1. 유학과 이민의 젠더성

이 논문은 해외 거주 경험에 기입된 여성의 공간 인식 양상과 특징을 파악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즉 유학과 이민을 ‘이주’가 아니라 ‘거주’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해외 거주 공간에서 여성의 자아의식과 젠더 정체성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 작가 손장순과 김지원의 소설을 대상으로 유학과 이민이라는 거주 경험이 파리와 뉴욕의 장소성과 상호 결합하는 방식 및 양상을 분석한다. 손장순과 김지원의 소설은 각각 파리 여자 유학생 서사와 기혼여성의 뉴욕 이민 서사에 속하면서 개별 작가의 고유성 파악에 앞서 해외 거주에 대한 젠더적 독해를 가능하게 하는 텍스트로 의미가 있다.

인간의 실존은 거주(dwelling)를 통해 확인된다고 할 때, 거주는 장소

를 가지는 것¹⁾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표현처럼 하나의 장소는 “인간 실존이 외부와 맺는 유대를 드러내는 동시에 인간의 자유와 실재성의 깊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위치”²⁾시킨다. 한편 공간은 누가, 언제 어느 장소에 놓이느냐에 따라 다르게 존재한다.³⁾ 즉 그 장소가 가진 고유의 조건과 특성뿐 아니라 그 장소를 점유하는 존재의 위치나 방향에 따라 다른 특성을 드러낸다.⁴⁾ 누가 어떻게 관계 맺는가, 즉 거주자의 주체와 거주 형태에 따라 존재가 장소를 경험하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학과 이민은 일시적인 관광이나 여행과는 다른 차원에서 외부 공간을 경험하는 사건이다. 유학과 이민은 한 장소의 내부에 점진적으로 진입해 그 장소의 이면을 해부하고 심층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즉 유학생과 이민자는 여행자와는 다른 시선과 위치에서 그 도시의 장소성을 경험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자아 정체성을 확인해간다. 장기간 수학하거나 이주해 살면서 동질성 혹은 차이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그 장소와 물리적, 정서적 거리를 조절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유학과 이민은 뿌리 뽑힘의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장소에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실존적 외부성⁵⁾에 근거한 여성과 장소의 특별한 관계 맺기 방

1) 김덕현, 『장소와 장소상실, 그리고 지리적 감수성』, 『배달말』 43, 2008, 7쪽.

2)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논형, 2005, 25쪽.

3) 이푸 투안은 장소와 공간의 의미를 구분해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공간은 장소보다 추상적이다. 무차별적인 공간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공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공간은 장소가 된다. 또한 공간이 움직임이 일어나는 곳이라면 장소는 정지(멈춤)이다. 나카무라 유지로, 『토포스: 장소의 철학』, 박철은 역, 그린, 2012, 20쪽.

4) 이명수, 『존재의 공간과 로컬리티』, 『공간의 사유와 공간이론의 사회적 전유』, 소명, 류지석 편, 2013, 131쪽.

5) 실존적 외부성(existential outsidersness)은 장소에 대한 무관심, 소외, 돌아갈 집의 상실, 세계에 대한 비현실감과 소속감의 상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장소는 실존의 중심이 아니며 모든 장소가 똑같은 의미 없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119-120쪽.

식을 상기해보면, 여성에게 거주는 또 다른 이주를 발생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여성은 근본적으로 장소를 점유하는 동시에 ‘탈장소’⁶⁾화함으로써 추상적 젠더 공간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본고는 유학과 이민이 서로 다른 거주 형태라는 점을 전제하되, 이 차이에 주목하기보다 해외 거주라는 공통항이 발생시키는 젠더적 의미에 집중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서 유학과 이민을 통해 점유한 장소가 여성에게 억압의 공간이 되는 동시에 남성중심성을 해체하는 인식론적 계기가 되는 전략적 공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고는 손장순과 김지원 소설에 나타난 파리와 뉴욕의 고유한 장소성에 여성으로서의 차별화된 경험과 인식이 어떻게 입력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손장순⁷⁾과 김지원⁸⁾은 각각 유학생과 이민자의 신분으로 파리와 뉴욕이라는 대도시를 경험하고, 이때의 체험을 소설로 형상화한 작가들이다. 손장순이 파리 유학을 떠나고 김지원이 도미한 196, 70년대는 한국에서 엄청나게 유학 열풍이 불고 이민자가 급증했던 시기였다. “출세를 하려면 유학을 다녀와야지”라는 상투어가 유행했을 정도로 유학은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하나의 풍속이 되고 있었다.⁹⁾ 식민지

- 6) 탈장소(displacement)는 디아스포라 담론에서 이주, 이민, 유배 등을 통해 조국을 떠나 새로운 국가에 이주했으나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이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이산자들의 상황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이 같은 디아스포라의 경험과 이들의 혼종적 정체성은 여성과 장소 이동간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개념이 될 수 있다. 여성과 탈장소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린다 맥도웰, 『젠더, 정체성, 장소』, 여성과공간연구회 역, 한울, 2010, 347-379쪽 참고.
- 7) 손장순은 1958년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원에서 유학생 활을 했다. 이후 1974년 프랑스 정부 초청으로 다시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원에서 연수하며 현대 프랑스 문학을 연구한 바 있다.
- 8) 김지원은 1973년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간 후, 1975년 『사랑의 기쁨』, 『어떤 시작』, 이 황순원의 추천을 받아 중단했다. 이후 2013년 1월 30일 뉴욕 맨해튼 자택에서 타계하기까지 평생 미국에 살면서 작품활동을 했다.
- 9) 통계에 따르면, 1954년경부터 해외 유학생 수는 급속도로 늘어나 1960년대 후반에 이르면 대략 만 명을 웃도는 수준에 이르렀다. 유학국은 대개 미국, 서독, 프랑스, 캐나다 등 자유진영 서방국가였고, 여성 유학생 비율도 30% 가까이를 차지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정부기관이나 대학의 장학금 제도로 진행되었던 유학

시기 외국 유학이 조선 지식인들에게 구국의 결단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요청되었던 당위였다면, 해방 후 구미 유학은 사회적 상승이동을 위한 첩경으로 인식되었다. 해외 이민이 급증한 것도 이 즈음인데, 특히 1965년 이민법이 바뀐 후 한국에서 미국 이민은 이상향으로 가는 통로로 인식되었다.¹⁰⁾ 해방 후 한국인의 미국지향성은 대중매체가 만들어낸 미국 표상에 힘입은 결과이지만,¹¹⁾ 196, 70년대 이후에는 한국의 암울한 정치, 경제적 상황이 경제적 풍요와 정치적 자유의 나라 미국을 지향하는 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파리와 뉴욕은 그 중심에 있다. 파리와 뉴욕은 그 자체로 고유성과 독특함을 지닌 일종의 ‘집합적 상징자본’¹²⁾을 축적한 대표적 도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970년대 한국에서 파리는 유럽의 선진 문화와 예술, 낭만을 표상하는 도시로, 뉴욕은 자유롭고 풍요로운 미국을 상징하는 최첨단 대도시라는 고정된 이미지와 담론들이 끊임없이 생산되었다. 때문에 대부분의 소설에서 파리와 뉴욕은 하나의 이미지로 소비되었고, 유학

이 1970년대 이후에는 거의 자비 유학으로 전환된 것만 봐도 해외 유학이 출세의 첩경으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도 해외 유학생들은 귀국 후 각계에서 권력 엘리트로 한국 사회의 지배적 역할을 수행했다. 김영모, 『해외 유학과 신엘리트 등장』, 『아카데미논총』 Vol.13 No.1, 1985, 162-173쪽.

- 10) 미국이민은 1900년대 초 하와이 사탕수수밭 노동자들의 노동 이민에서 시작되었지만 해방 이후 꾸준히 진행되다 1965년 자유로운 이민을 허용한 미국이민법이 바뀌면서 급증했다. 이민 초기인 1968년 이전까지는 연간 4천 명 이하였으나 1970년 9,314명, 1973년 22,230명, 1980년 32,320명으로, 1970년대에 이민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민경희, 『미국 이민의 역사 이론과 실제』, 개신, 2008, 13쪽, 237쪽.
- 11) 1950년대 담론형성의 장이었던 잡지매체는 선진화된 미국의 교육제도나 자유로운 문화풍토를 경쟁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미국을 꿈의 나라로 선망하게 유도했다. 특히 미국문화를 선호한 여성독자들을 상대하는 잡지 『여원』 등에서는 여성문화와 가정문화의 모델로 미국문화가 소개하여 친편일률적인 미국 표상이 만들어졌다. 이선미, 『미국이민 서사의 ‘고향’ 표상과 ‘민족’ 담론의 관계』, 『상허학보』 20, 2007, 454-455쪽.
- 12) 데이비드 하비는 브리디외의 상징자본 개념을 도시 분석으로 확장시켜, 그 도시가 축적해온 고유성과 독특한 성격을 ‘집합적 상징자본’이라 표현했다. 탁선호, 『뉴욕과 뉴욕커에 대한 이야기들』, 『인물과 사상』 Vol.137, 2009, 114-115쪽 참고.

과 이민 모티프 또한 “일상적 체험의 차원이 아니라 이상을 실현하는 관념의 차원”¹³⁾에서 동원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196,70년대에도 유럽으로 유학한 여성은 여전히 소수였고, 미국 이민이 허용된 계층도 한정적¹⁴⁾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볼 때, 손장순과 김지원의 경험은 일종의 특혜이면서 특권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장순과 김지원의 텍스트는 이 같은 특권적 체험의 표현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여성과 장소가 관계 맺는 젠더화된 특징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즉 이들 소설에서 유학과 이민 서사는 연애와 결혼, 성이라는 사적 영역에서의 관계 맺기 양상을 통해 형상화되고, 이를 통해 여성 자아가 세계와 부딪치고 존재를 확인해가는 복합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계기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파리와 뉴욕의 고유한 장소 이미지는 상실되고 일상적인 생활공간으로, 다시 추상적인 젠더 공간으로 의미화 한다.

즉 손장순과 김지원은 배타적 남성 공간의 안과 밖, 중심과 주변을 동시에 점유하는 유학생과 이민자 여성을 통해 파리와 뉴욕을 모순이 중첩된 ‘역설적 공간’¹⁵⁾으로 탐색해간다. 손장순과 김지원의 소설이 경계를 넘나드는 거주/이주 경험과 여성 젠더의 정체성 이행 과정을 탐색하기에 적합한 텍스트가 될 수 있다면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13) 최기숙, 「교육 주제로서의 여성과 서구 유학의 문제」, 『여성문학연구』 12, 2004, 121쪽.

14) 선진사회의 주체가 되기 위해 선택된 이민으로서 미국이민은 1965년 이후 고학력 중산층이 주를 이루었다. 윤인진, 『코리아 디아스포라』, 고려대출판부, 2004, 200쪽.

15) 페미니즘 지리학자 로즈에 따르면 ‘역설적 공간(paradoxical space)’은 동일자/타자 영역의 교란, 분리된 동시에 연결되기, 중심과 주변의 동시적 점유, 안과 밖에 동시에 존재하는 모순이 중첩된 공간이다. 이 공간은 남성중심의 질서와 권위를 비판하는 전복적 전략을 수립하고 경계 너머를 상상하게 페미니즘적 저항 공간이 될 수 있다. 질리언 로즈, 『페미니즘과 지리학』, 정현주 역, 한길사, 2011, 339-349쪽.

2. 동일성/타자성의 차이와 해체, 표류 공간으로서의 파리

손장순은 프랑스 파리에서 수학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학 모티프와 ‘유학생 세대’¹⁶⁾의 초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소설을 발표했다. 손장순의 소설은 여성인물이 민족 정체성과 젠더 정체성을 상호 연동해 새롭게 자아정체성을 구성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 가운데 『우울한 빠리』¹⁷⁾와 『빈 청사진』¹⁸⁾, 『거대한 물결』¹⁹⁾, 『도시일기』²⁰⁾ 등은 한국 여성 유학생의 시각에서 프랑스 파리의 이면과 속살을 냉정하게 해부한 흥미로운 사례로 읽힐 수 있다.

손장순은 여행기에서 파리의 자유로움과 세련된 감각에 대한 자신의 동경과 선망을 고백하기도 했지만,²¹⁾ 소설에서는 『우울한 빠리』와 『빈 청사진』 등의 제목이 말해주듯, 자유와 관용, 예술과 문화, 낭만과 매혹이라는 프랑스 파리의 장소 표상을 해체하고 파리를 ‘빈’ 환영뿐인 ‘우울’하고 비정한 도시로 재현하고 있다.

이것은 파리에 대한 상상과 경험적 실체 사이의 낙차에서 비롯된 바, 이 차이와 다름이 손장순 유학생 서사의 주요 갈등 요인으로 작용한다. 더 구체적으로 이 차이는 ‘한국인’ ‘여성’ ‘유학생’이라는 세 가지 범주가

16) 손장순은 유학과 출신 지식인들을 일컬어 ‘유학생 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손장순, 『동과 서의 만남』, 『손장순 문학전집』 12, 푸른사상, 2009, 317쪽.

17) 손장순, 『우울한 파리』, 『현대문학』, 1976.1, 『손장순 문학전집』 13, 푸른사상사, 2009, 17-41쪽 재수록.

18) 손장순, 『빈 청사진』, 『신동아』, 1976.3. 이 작품은 『손장순 문학전집』에 빠져 있어 『신동아』 게재본(404-418쪽)을 사용하였다.

19) 손장순, 『거대한 물결』, 『월간문학』, 1980.1, 『손장순 문학전집』 14, 푸른사상사, 2009, 291-306쪽 재수록.

20) 손장순, 『도시일기』(원제: 뿌리 없는 가지), 『현대문학』, 1983.9, 『손장순문학전집』 13, 푸른사상사, 2009, 327-388쪽 재수록.

21) 손장순은 세계 여행기 『나의 꿈 센터멘탈 저니』(문리사, 1977)에서 프랑스에 대해 “첫인상은 무질서해보이고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말괄량이 같지만 사귄수록 풍부한 매력이 끊임없이 샘솟아 나오는 개방적이면서 신비스런 여자”같다면서 여전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중첩되는 지점에서 환기된다. 특히 인종, 민족, 젠더 간에 잠재되었던 충돌과 차이를 드러내는 중요한 모티프는 바로 성과 연애 문제이다. 그도 그럴 것이 프랑스인의 자유로운 성 생활과 개방적 성문화는 한국 유학생들로 하여금 파리가 표상하는 자유와 관용이라는 가치를 체감하고 고국과의 차이를 확인시키는 지표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한국의 남녀 유학생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다.

『거대한 물결』에서 성화는 파리 유학 5년 만에 “여자의 순결에 대한 한국적인 고정관념”이 “지성과 감각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이란 사실을 인정한다. 반면 인환은 한국 여자들이 빠리 여자를 닮아가는 것을 ‘변질’이라고 못마땅해 한다. 여성들이 성 욕망을 ‘거대한 물결’과 같이 거부할 수 없는 본능으로 재발견하는 데 반해 한국 남성들은 여전히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성화는 섹스에 관계를 구속시키지 않으려 하고 인환에게 피해의식을 느끼게 함으로써 의식적인 ‘탈바꿈’을 시도한다. 그러나 성에 대한 여성의 의도적 적극성이나 남성들의 거부감은 모두 한국사회의 보수적 성 관념을 재현한 것에 다름 아니다.

주목할 것은 성화에게는 성적 자유를 추구하는 행위가 한국이 아닌 서구의 가치에 자신을 대입해 동일성을 확인하는 증거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손장순은 서구 사회에 동화되려고 했던 성화의 모습을 통해 동양여성과 ‘다름’이 곧바로 서양인과 ‘같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작가는 다음과 같은 인환의 말을 통해 탈바꿈에 대한 여성들의 강박이 또 다른 고정관념이나 피해의식에 다름 아님을 지적한다.

그보다 내가 너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너는 결혼에 완전히 초연할 수 있을 만큼 여성 해방주의자는 아니지. 말하자면 섹스 앞에 남녀는 동등하니까라는 식으로. 그렇지만 마음으로 사랑하는 남자와 꼭 결혼하고 싶은 것과 섹스를 했으니까 결혼해야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도덕적인 고정관념이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점은 마찬가지야. (『거대한 물결』, 『손장순 문학전집』 14, 303-304쪽²²⁾)

이처럼 손장순은 파리의 ‘한국 여성 유학생’이라는 존재를 통해 한국사회 내부의 모순과 억압뿐 아니라 여성 스스로 내면화한 가부장적 폭력의 보편성을 문제삼고자 했다.

『우울한 빠리』는 소르본느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 묘선과 프랑스 남성 장, 알제리 출신 모하멧의 관계를 중심으로 ‘여성 유학생’의 위치와 정체성을 성찰한 소설이다. 작가는 첫 대목부터 을씨년스럽고 습기 찬 파리의 날씨를 묘사함으로써 파리에 대한 낭만적 판타지에 기대어 서사를 진행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를 내비친다. 여기서 묘선은 유학생 생활 몇 년에 파리 생활이 익숙해져 프랑스 남성 장과 연애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한국인 커뮤니티 특히 한국 남성집단과는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살아간다. 묘선의 눈에 비친 한국 남성들은 경제적으로 궁색하게 살아 소극적이고 소심하지만, 자의식과잉으로 자존심만 내세우는 한심한 모습이다.

데이트 자금이 넉넉하지 못하다보니 이래저래 소극적이 되어버린 한국 남학생들은 여자의 눈치를 보기가 일쑤다. (중략)

그 후 빠리 유학생간에는 묘선이 경민에게 채였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변명하기에는 너무나 치졸하고 구질구질한 생각이 들다보니 그녀는 혼자라고 수할 뿐이었다. 한국 학생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그녀의 한국 남자들에 대한 반발이 외국 남자들과 가까워지는 것으로 사출(射出)되고, 외국 남자들에 대한 경계와 경원감은 소리없이 무너져내렸다. (『우울한 빠리』, 『현대문학』, 1976.1, 89-91쪽)²³⁾

이렇게 묘선이 한국 남성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장면은 매우 시사적이다. 그것은 한국 내에서 오로지 관찰과 감시의 ‘대상’이었던 여성이 한국 남성을 바라보는 ‘시선’과 ‘거리’를 갖게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외

22) 이하 인용 페이지는 『손장순 문학전집』(푸른사상사, 2009) 수록본으로 제시한다.

23) 이 소설을 재수록한 『손장순 문학전집』에는 한국 남성 경민과의 만남을 회상하는 이 장면이 빠져 있다. 해서 이 부분은 처음 발표된 『현대문학』 텍스트로 제시한다.

부에서 바라본 한국 남성은 무능하고 배타적이면서 자존심만 내세워 스스로 격리되고 고립된 모습이었다.

이와 관련해 『빈 청사진』의 수정과 한국 남성의 다음 대화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성선생님, 이곳 생활에 아직 적응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빠리에 오셨으면 한국 사람만 찾아다니지 말고 외국인과 사귀어 보세요. 그래야 언어도 늘고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되지 않아요.」

「학교에서 이따금 외국인들과 어울려 차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럴수록 가슴은 답답하고 외로워지는 걸요. 정서적인 소통이 없어서 그런가 보아요. 우리나라 사람과 우리나라 말을 하고 싶어서요.」 (중략)

「한국이 무어가 좋아요. 집에서 나의 인생의 청사진을 알고 싶다는 등 아버지가 귀국을 재촉하는 편지를 성화같이 보내지만 가면 무얼해요. 빠리는 나가면 볼 것 천지이고 보아도보아도 무궁무진해서 자극의 연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 보아야 남의 나라 문화가 아닙니까. 보고 배우면 제 고장에 돌아가서 그것을 피력해야 보람이 있죠.」 (『빈 청사진』, 『신동아』, 1976.3, 406쪽)

수정이 프랑스 문화에 쉽게 동화되고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성선생에게 프랑스문화는 기껏해야 ‘남의 나라 문화’, 이국 생활은 ‘객지생활’일 뿐이고, 궁극적으로 고국으로 환원해야 할 문화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일 뿐이다.²⁴⁾ 한국여성의 서구 친연성을 이국취미나 사대주의쯤으로 폄하해 왔던 남성들의 논리적 근거도 여기에 있다. 한국남성은 한국 가부장 권력의 수호자 혹은 감시자를 자처하며 한국여성의 삶을 구속하고 감시한다. 그러므로 프랑스 남성과 연애하는 한국여성에게 대한 비난 역시 외국에서 더욱 강화되는 한국남성의 보수적 민족관념

24) 남성들에게 여행을 비롯해 시야를 넓힌다는 외국 체험은 문화자산의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민족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린다 맥도웰, 앞의 책, 354쪽.

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우울한 빠리』의 묘선과 『빈 청사진』의 수정 모두 한국여성의 성적 순결성을 감시하고 구속하는 한국남성 커뮤니티의 낡은 가부장 의식과 집단적 횡포에 히스테리적 거부감을 보인다. 이들의 모순적이고 분열적인 의식구조는 한국 사회의 보수성과 구속력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니 “한국인들이 한국인에게 가하는 제약과 구속”을 병적으로 거부하는 수정의 행동이 프랑스 친구에게 노이로제와 피해망상으로 비춰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손장순은 한국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해온 정체성 폭력을 단순히 남성들의 보수성 문제로 돌리는데 그치지 않는다. 작가는 한국남성을 대상화하는 데서 나아가 한국여성이 스스로를 대상화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했다. 서사가 진행될수록 묘선과 수정은 한국 남성의 열등함을 추출해내는 시선이 철저히 ‘서구인’의 눈에 맞춰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함과 동시에 같은 기준에 의해 자신들 스스로도 타자가 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우울한 빠리』에서 장과 하룻밤 정사로 임신한 묘선은 장의 냉담한 반응에 크게 상처를 받는다. 이 사건을 통해 묘선은 ‘동양적 사고방식’과 ‘동양 여자의 피해의식’을 탈피해야 한다는 강박이 자신의 열등감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만약에 장에게 도움을 청했다면 어떻게 나왔을까.

보나마나 뻘한 일이다. 그 후 장은 한 번도 묘선을 찾아오지 않는 것이다. 그는 임신의 사실을 알게 된 다음날 음악회에 가자고 청했으나 그녀는 또 거절을 했다. 자유가 사회주의 대신에 신앙인 그의 에고이즘은 묘선에게 비정을 느끼게 한다.

역시 나는 동양의 촌뜨기인가. (『우울한 빠리』, 『전집』 13, 36쪽)

결국 낙태가 허용되는 영국까지 건너가 수술을 하고 돌아오면서 묘선

은 동양 여성인 자신과 서양 남자인 장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거리를 확인한다. 장의 ‘자유로움’이 ‘에고이즘’으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 묘선은 자신이 그토록 동경하고 선망하던 파리가 실제 없는 환영이었음을 깨닫는다. 이 과정에서 묘선이 위로 받는 대상이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 국적의 모하멧이란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제 3세계 아랍인을 바라보던 묘선의 시선이 제 1세계 프랑스인의 그것을 모방한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소설에서 낙태는 한국에서 습득했던 서구=근대에 대한 지식, 즉 ‘인권’이나 ‘자유’라는 단어에 기입된 이율 배반성²⁵⁾이 여성 육체의 훼손으로 가시화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낙태 사건은 그녀에게 “한국인으로서의” “도덕적인 감각”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자신을 옳아매는 억압기제의 정체를 확인하게 해준다. 불문학을 공부하고 프랑스인과 연애를 하는 것으로 ‘탈바꿈’을 시도했으나, 묘선과 프랑스 남성 사이에는 결코 동질화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 차이를 자각함으로써 묘선은 비로소 주류적 시선에서 분리되어 자신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성찰적 거리를 확보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경우 대개 남성들의 서사는 서구와의 대척점에서 민족 정체성 확인 절차를 거쳐 한국으로 회귀하는 경로를 거친다. 그러나 손장순의 소설에서 이 차이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회복이나 귀향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시 말해 남성들의 이국 체험이 본질적으로 자신의 소속을 확인하고 일상을 회복하려는 욕망과 관련되어 있는 반면 여성에게 이것은 집(home)으로의 귀환을 전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손장순 소설의 결말은 이 같은 ‘차이’가 여성에게 또 다른 이주를 발생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빈 청사진』의 수정은 박사학위와 결혼이라는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25) 전소영, 『‘유학생’ 표상, 착종된 현대의 투시도-손장순의 1970~1980년대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방민호 외, 『아프레게르와 손장순 문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335쪽.

강박관념에 시달리다 아버지 사망과 한국 귀국이라는 두 개의 현실을 모두 부정하고 의식 분열 상태에 이른다. 영원히 미완인 박사논문처럼 수정에게 파리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이방의 공간, 텅 비어 있는 ‘청사진’으로만 남게 된 것이다. 한국 여자 유학생은 ‘빠리식’ 몸과 ‘한국식’ 사고 사이에 ‘깁-존재(in-between)²⁶⁾로 프랑스와 한국, 그 어디에서도 고정된 장소를 점유하지 못하고 각 장소 ‘사이’를 진동하다 자기 분열하고 만다.

『도시일기』에서는 귀국 후 ‘국외자’로 서성거리는 승연의 모습을 통해 파리에서도 한국에서도 정박할 수 없는 엘리트 여성의 이중적인 소외 문제를 제기한다. 승연은 파리 유학시절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착실히 공부를 하여” 불문학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그러나 파리의 공기 속에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누리던 성의 자유는 한국에서 승연을 죄의식과 자책감으로 옴아매는 ‘콤플렉스’로 작용했다. 또 파리 유학 전력이 만들어낸 성적 추문 때문에 승연은 한국에서 겨우 얻은 대학의 전임 자리를 박탈당하고 만다. 유학 전력은 결혼 문제에서도 경력에서도 족쇄가 되었고, 승연은 정신 질환 증세를 보이는데 이른다. 이처럼 자유로운 서구 문화를 경험한 여자 유학생들은 보수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한국의 풍토에서 배척당할 뿐 아니라,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도 없었던 것이다. 육체를 매개하지 않으면 서구 문화에 진입하지 못하고 한국사회로 온전히 흡수되지도 못하는 여성 유학생의 존재는 그 자체로 근대와 전근대, 진보적 사고와 보수적 가치관이 공존하는 당시 한국사회의 알레고리인 셈이다.

그러나 이렇게 스스로를 ‘국외자’로 인식하는 순간 파리라는 고유명사는 새로운 의미로 전유되기에 이른다. 낙원이나 마음의 고향으로서의 파리를 부인하고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틈새에서 파리라는 중심에 대한 상상이 해체되기 시작한다.

승연은 파리의 가을이 향수처럼 떠오르곤 했으나 이제 파리의 모든 풍경

26) 장성규, 『프랑스 문학사상 수용과 손장순 문학』, 방민호 외, 위의 책, 93쪽.

들이 하나의 정물화를 바라보듯 담담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파리 그곳은 그녀의 젊음을 차압했던 암담한 낙원이요, 영원한 외곽지대이다. 한때 그곳을 마음의 고향처럼 생각하고 공부하던 대학시절부터 그녀의 오류는 시작된 듯하다. (『도시일기』, 『전집』 13, 387쪽)

이렇게 손장순 소설에서 파리는 서구라는 국가 권력과 한국 가부장의 명령이 구성원들과 구성원들의 관계를 파편화하는 분열의 공간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손장순은 이 ‘차이’를 통해 파리라는 장소에 내재된 공간적 폭력성을 탐색하는 동시에 역설적 공간에 잠재된 전복과 저항의 전략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렇게 하여 인종, 민족, 젠더의 중심 파리는 유동적이고 탈중심적인 ‘표류공간’²⁷⁾으로 재맥락화된다. 이때 여성 유학생은 서구 동일성과 타자성을 동시에 경험하고 탈장소성을 실천하는 여성 젠더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3. 집(home)/집없음(homeless)의 경계 넘기, 부재 공간으로서의 뉴욕

김지원의 소설은 대다수가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김지원 소설에서 ‘이민’은 서사적 전제로 숨겨져 있을 뿐 구체적인 사건으로 형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지 이에 주목한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김지원 소설의 테마는 인간 삶의 근원성과 인간 존재의 실체에 대한 탐구라고 평가²⁸⁾되어 왔다. 그러나 김지원 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들의

27) 세르토의 공간 개념을 차용하였다. 세르토의 이론에 따르면, 폐쇄적인 권력이 작용하는 ‘절대공간’과 차이화·파편화 전략을 구사하는 ‘표류공간’, 기존 틀을 전복시키고 거부하는 ‘부재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표류공간’이란 지배권력이 통제하지 못하는 해방구이자 대안공간으로, 차이와 파편화, 거리화 전략으로 미시반란이나 미시전복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장세용, 『미셀 드 세르토의 공간이론』, 류지석 편, 앞의 책, 54-77쪽.

존재론적 갈등은 ‘뉴욕’이라는 장소가 제공하는 삶의 양식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또한 김지원 소설은 인종 간 관계 구조나 문화적 갈등 상황을 통해 민족 정체성 문제를 탐색하는 여타의 이민서사²⁹⁾와 다른 지형에서 이민 여성의 정체성과 자의식 문제를 다루고 있다.

김지원이 도미한 1970년대 한국에서 미국 뉴욕은 이국 판타지의 진원지였다. 당시 유행했던 ‘뉴욕병’이란 단어는 억압과 통제의 시대를 사는 한국인에게 뉴욕과 뉴욕커가 얼마나 매력적인 기호였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특히나 한국 가부장제의 모순 가운데 있는 여성들에게 미국 여성의 주체적 삶에 대한 낭만적인 소문들은 미국 열병을 부추기기에 충분했다.³⁰⁾ 이런 가운데 미국의 가장 자유롭고 풍요로운 도시 뉴욕은 사랑과 결혼, 섹슈얼리티의 동등한 주체로 살고 싶은 여성들의 희망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이상향으로 추상되었다. 여성들의 ‘미국병’ 현상은 단순히 사대주의적인 취향이나 유행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들의 절박한 자기 인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³¹⁾ 그러나 실제로 이민자들이 경험한 뉴욕은 “숫아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겐 바로 지옥”³²⁾과 같은 곳이다. 뉴욕은 너무 많은 것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역설적인 결핍과 소외를 불러일으키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이방인의 땅이었다.

이런 시각에서 김지원은 기혼 여성 서사를 통해 주체적인 자아를 향한

28) 홍정은, 『폐쇄적 자기인식과 의식의 공간화』, 『알마텐』 해설, 동아출판사, 1988, 358쪽.

29) 일반적으로 이민 서사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미국을 기대하며 이민을 감행했던 초기 이민자들이 미국의 실체를 목격하고 느낀 충격과 갈등이 주요 내용을 이룬다. 이 경우 인물들은 나를 고향으로, 고향을 고국으로 환원하는 관계를 통해 정체성을 구성하고, 이러한 사이에 나라는 개별적 존재의 차이는 무화되고 나는 곧 고국이라는 국적 문제로 추상화된다. 이선미(2007), 앞의 글, 447쪽.

30) 1950년대~1960년대 여성 잡지들에는 유독 뉴욕 소식을 전하는 난이 많은데, 뉴욕의 한국인들을 통해 뉴욕을 이상화하는 『여원』의 ‘뉴욕통신’이 대표적이다.

31) 이선미, 『1960년대 여성지식인의 ‘자유’담론과 미국』, 『현대문학의 연구』 29, 2006, 437-438쪽.

32) 김채원, 『나이야가라』, 『초록빛 모자』, 나남, 1984, 155쪽. 김지원과 같이 도미한 동생 김채원의 소설에도 이 같은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비상구로 여겼던 뉴욕이 이민 여성의 삶을 어떻게 구속하고 소외시키는지를 탐색해간다. 『한밤 나그네』³³⁾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떠밀려온 하옥이란 인물이 있다. 하옥은 서울에서 연애 실패로 세 번의 유산을 하고 ‘로엔그린’³⁴⁾ 같은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며 도미를 결심한다. 물론 하옥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이민이지만, 하옥을 낫선 땅으로 밀어낸 것은 불평등하고 모순된 한국적 상황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당시 한국의 보수적인 성 윤리에 의하면 낙태와 유산으로 훼손된 하옥의 ‘불결한’ 육체는 죄의식과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섹슈얼리티의 금기를 위반한 대가로 하옥의 미래는 부정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³⁵⁾ 이때 자유와 진보로 대변되는 미국은 하옥을 용인해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 상상되었다. 미국에서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며 하옥이 존재의 변신을 기대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미국에 온 하옥을 기다리는 것은 “지루하고 간헐 생활”이다. 하옥은 이모집에서 조카를 돌보고 편물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며 그저 반복적인 일상을 견디며 살 뿐이다. 그 와중에 만난 경수는 목공소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잡일을 하는 인물이지만, 하옥은 막막한 감정을 공유하며 그를 “여로의 동반자” 삼아 폐허 같은 현실을 견디고자 한다. 그러나 경제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이민자 신분으로는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도, ‘로엔그린’ 같은 왕자와 결혼해 구원을 얻을 수도 없었다. 그런 미국은 하옥에게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었다.³⁶⁾

33) 김지원, 『한밤 나그네』, 『폭설』, 수상사, 1978. 여기서는 『김지원 소설 선집』 2(작가정신, 2014)를 텍스트로 삼았다.

34) 『로엔그린』은 바그너의 오페라로, 동생 살해 혐의를 받은 엘자가 심문을 당하면서 꿈에서 자신을 구해준 로엔그린을 노래하자, 로엔그린이 백조를 타고 나타나 엘자를 구해내는 이야기다.

35) 196, 70년대 한국의 보수적 성담론은 피임이나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낙태는 1973년 모자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일정한 경우에 허용되었다고는 하지만, 피임 기구의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피임은 불법이나 마찬가지였다. 배은경, 『출산통제와 페미니스트 정치』, 『모성의 담론과 현실』, 심영희·정진성·윤정로 편, 나남, 1999, 139-140쪽 각주 4번 참조.

더욱이 경수는 영주권이 있는 하옥과 결혼한 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가부장적인 남편의 모습을 보여준다. 아침으로 된장찌개와 동태 구이를 원하는 남편과 “침묵의 밥”을 먹고, 빨래와 설거지를 하거나 “백점 받는 아이들을 가진 이웃 여자들과 잡담”을 하는 일밖에는 할 수 없는 “누에고치 안에 갇힌 삶”은 한국에서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작가는 하옥의 뉴욕생활의 실체를 남편 경수 뒤로 보이는 “막힌 벽”과 “어둡게 내려앉은 뉴욕 하늘”로 상징하고 있다.

이처럼 김지원 소설에서 여성들이 겪는 갈등은 우선적으로 ‘관계 맺기’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여성 인물들은 남성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안정적인 삶을 꿈꾸는 반면, 남성들은 이기적일 정도로 가부장적이거나 비현실적일 만큼 자유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밤 나그네』의 하옥과 경수가 그렇듯이, 『폭설』의 진주와 정섭, 『잠과 꿈』의 혜기와 남편 순구, 『지나갈 어느날』의 하옥과 남편의 관계는 서로 어긋나 있다. 이들의 어긋남은 뉴욕에서 꿈꾸는 삶이 서로 다른 지점에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폭설』³⁶⁾에서처럼 서로 학비를 벌어가며 공부하던 “배고프고 고단하지만 좋은 동무”였던 진주와 정섭은 결혼 후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라” “감정 전달이 어려”운 관계가 되어 1년 반 만에 별거를 하고 정섭은 출장을 핑계로 집을 떠난다. 『잠과 꿈』³⁸⁾에도 출장이 잦아 늘 집을 비우는 남편으로 인해 홀로 아이를 키우며 낯선 도시에서 살아가는 주부 혜기가 등장한다. 그녀는 항상 “남편은 모호하게 느껴지고, 자기 자신은 가치없이 느껴”지는 “축축한 그늘 같은 감정” 가운데 살고 있다.

-
- 36) 1965년 이후 미국 이민은 중산층이 중심이 되었지만, 미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대체로 직업 하위의 하하이동을 경험한다. 미국의 교육과 전문적 자격증 갖지 못한 대다수 한인들은 백인사회의 편견과 장벽 때문에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하위 직업들에 종사하며 경제적 지위의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재미한인의 압도적 다수가 노동직이나 소규모 자영업, 서비스업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최협, 『다민족사회, 소수민족, 코리아 아메리칸』, 전남대학교출판부, 2011, 212-213쪽.
- 37) 김지원, 『폭설』, 『세대』, 1979, 『김지원 소설선집』 1, 작가정신, 2014, 25-127쪽 재수록. 이하 인용 페이지는 『김지원 소설선집』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 38) 김지원, 『잠과 꿈』, 『김지원 소설선집』 1, 작가정신, 2014, 131-257쪽 재수록.

갈수록 순구는 혜기에게 모호한 존재였다.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내와 아이는 어느 정도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지, 혜기처럼 그도 이 가정을 속박으로 느끼고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 같은 자유와 독립을 꿈꾸는 때가 있는지. (『잠과 꿈』, 『김지원 소설선집』 1, 139쪽)

『지나갈 어느날』³⁹⁾에서 연자 역시 “무명의 이방인으로 살 수 있는” 자유로움을 즐기는 남편과 달리 무의미로 점철된 주부의 삶을 견디며 사막 같은 결혼생활 속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다. 여성들은 ‘집 안의 이방인’ 같은 남편의 존재를 통해 이방의 삶을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연자의 남편처럼 자유를 추구하면서 가정에 무책임한 남성들의 모습은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한’ 가장의 평균적인 의무와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나를 반증한다. 그러나 그 자유가 아내의 열등감을 자극할 뿐 아니라 아내를 가정에 구속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의 무책임과 방종에 대한 변명에 불과할 것이다.

『폭설』에서 진주는 바라보는 방향이 어긋난 남편을 떠나보낸 후,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기를 만나 매력을 느끼고 그와 같이 살고 싶어 부양하던 엄마를 한국으로 돌려보내기까지 한다. 그러나 기에게 “갑옷 입고 투구 쓰고 방패가 되어”주는 가정을 원하는 진주와 ‘자유롭게 살 권리’를 주장하는 기 사이에는 “넘실대는 망망한 바다”만큼의 거리가 있다. 기는 진주에게 스스로 금기를 깨고 자유로워지라고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는 진주에게 기가 허용한 자유는 일종의 폭력이 될 수 있다.

약속대로 거침없이 기는 자기의 생을 사는 것 같았지만 진주 자신은 손님 같았다. 진주는 끊임없이 기의 기분을 살피고 기의 마음에 드는 여자가 되려고 애썼다. (중략)

39) 김지원, 『지나갈 어느날』, 『문예중앙』, 1984. 『김지원 소설선집』 2, 작가정신, 2014, 297-347쪽 재수록.

기가 혼자 여행을 떠나버리든가 외박을 하면 진주는 밥을 하지 않고 아무거나 먹었다. 그럴 때 진주는 재미있게 사는 듯 보이는 기를 질투하며 자신을 무시당하고 매력 없고 찌꺼기인 듯 느꼈다. 자신의 인생은 자기 것이 아니고 기 또한 물론 자기 것이 아니었다. 자기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듯했다. (『폭설』, 『선집』 1, 54-55쪽)

동거 끝에 결혼을 하지만 기의 생활은 변함이 없고, 심지어 중국 여성과의 데이트를 위해 진주의 외출을 종용하기도 한다. 자유와 진보를 우월한 가치로 여기는 기 앞에서 진주는 열등감과 자괴감에 빠지고, 결국 정신 분열 증세를 보인다.

이처럼 고향에서 이탈한 남성들은 미국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책임을 벗어던지는 동시에 낮은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가정(home)을 요구하는 모순된 의식을 드러낸다.⁴⁰⁾ 이 때문에 여성들은 여전히 가정 내에서 가부장적 관습에 따른 전통적인 성역할을 요구받게 된다. 그러나 남편들이 누리는 자유가 아내의 선택권을 박탈한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정은 가부장제의 보편적 폭력이 행사되는 공간이다.

이 같은 남편들의 무책임과 무관심을 견딜 수 없는 아내들은 “제발 내게 좀 무슨 일이든 일어나기”만을 바라며 은밀하게 연애 혹은 정사를 꿈꾸지만, 그 ‘무슨 일’은 잠시 동안의 외도나 일탈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옥은 경수와 별거하고 독립적인 삶을 도모했지만 임신이라는 굴레에 갇혀 경수를 다시 받아들이고, 연자 역시 연애대상인 찬준을 떠나 가족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물론 진주처럼 기의 느닷없는 죽음 앞에서

40) 이런 맥락에서 민족주의자 남성들이 가정이라는 여성적 공간을 피식민인이 식민 지배에 저항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면서 여성에게 전통을 수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여성들이 서구화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지적을 상기해볼 수 있다. Singh, Jaspal Kaur, “Globalization, Transnationalism and Identity Politics in South Asian Women’s Texts”, *Michigan Academician* 35.2:171-188, 2003, 이승은, 『초국가적 의식과 여성 공간』, 『미국이민소설의 초국가적 역동성』, 김민정 외 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1, 124쪽 재인용.

타의로 돌아갈 곳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옥과 연자의 귀기는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새로운 이주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김지원 소설에서 여성들의 귀기는 “지금은 전쟁하고 싶어도 전쟁할 때가 아니”(『지나갈 어느날』)므로 혼자 떠날 수 있을 만큼 “힘이 좀 붙은 후”(『한밤 나그네』)를 기다리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떠남을 유예시킨 귀기라는 점에서 완전한 정착이나 영구적 거주라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고향에 대한 향수로 전환되거나 귀국의 계기가 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앉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하옥의 모습은 모국과 이국, 그 어느 공간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여성들의 삶을 은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김지원은 자유와 풍요의 기호였던 뉴욕을 침묵과 추방, 결핍과 상실의 ‘부재공간’⁴¹⁾으로 형상화했다. 김지원 소설에서 뉴욕이라는 기표는 관계맺기의 실패로 자신의 타자성을 확인하는 여성인물들을 통해 일상적인 무의미의 공간으로 환치되고 있다. 김지원 소설에서 여성들은 뉴욕이라는 도시와 그 도시가 만들어준 가정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떠남을 꿈꾼다. 그러나 이런 뿌리 없음의 상태를 단순히 정체성 혹은 근원의 상실이라고 파악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이런 결말은 ‘넘나듦의 삶(dwelling-in-displacement)’⁴²⁾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처럼 김지원 소설은 고착성에 대한 모든 시도와 욕망이 폐기된 지점에서 유목민으로서 여성 젠더의 새로운 정체성과 가능성을 타진하게 한다.

41) 세르토는 모든 지식/권력의 공간을 떠나 영구적 이탈운동을 통해 발견하는 공간을 ‘부재공간’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곳은 타자의 공간이지만 여기서 주체는 물론 타자도 절대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혼종성의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장세용, 앞의 글, 69-73쪽.

42) 최윤영, 『초국가적 이산 가정과 여성』, 김민정 외 편, 앞의 책, 268쪽.

4. 이주와 거주의 탈경계성

이 논문의 목적은 여성의 해외 거주 경험에 기입된 여성의 공간 인식 양상과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즉 유학과 이민을 ‘이주’가 아니라 ‘거주’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거주 공간에서 여성의 자아의식과 젠더 정체성 형성 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 작가 손장순과 김지원의 소설을 대상으로 각각 유학과 이민이라는 거주 경험이 파리와 뉴욕의 장소성과 상호 결합하는 방식 및 양상을 분석했다.

유학생과 이민자에게는 여행자와는 다른 시선과 위치에서 그 도시의 장소성을 경험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자아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손장순과 김지원은 이를 연애와 결혼, 성이라는 사적 영역에서의 관계 맺기를 통해 서사화한다. 이를 통해 손장순과 김지원은 여성들로 하여금 서구 중심 남성 공간의 안과 밖, 중심과 주변을 동시에 점유하게 함으로써 파리와 뉴욕을 모순이 중첩된 역설적 공간으로 탐색해간다.

손장순은 자유와 관용, 예술과 문학, 낭만과 매혹이라는 프랑스 파리의 장소 표상을 해체한 지점에서 유학 모티프와 유학생 세대의 초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 손장순 소설에서 파리에 대한 상상과 실상의 차이는 ‘한국인’ ‘여성’ ‘유학생’이라는 세 가지 범주가 중첩되는 지점에서 환기된다. 이때 성과 연애의 문제는 인종, 민족, 젠더 간에 잠재되었던 충돌과 차이를 드러내는 중요한 모티프이다. 손장순 소설은 이 ‘차이’가 또 다른 이주를 발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파리를 탈중심적 ‘표류공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지원 소설은 여타의 이민서사와 다른 지형에서 이민 여성의 정체성과 자의식 문제에 접근한다. 김지원 소설에서 여성인물들의 존재 탐색과정은 미국 뉴욕이라는 장소가 제공하는 삶의 양식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그의 소설에서 여성들이 겪는 갈등은 남성들과 관계 맺기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관계 맺기의 실패로 타자성을 확인함으로써 뉴욕이라는 기표는 일상적인 무의미의 기호가 되고, 뉴욕은 여성에게 침묵과 추방, 결

핍과 상실의 '부재 공간'이 된다. 김지원은 이처럼 모국과 이국, 집의 안과 밖, 그 어느 공간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여성의 모습을 통해 새로운 이주, 혹은 경계 넘나들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처럼 손장순과 김지원 소설에서 유학과 이민이라는 해외 거주 경험은 젠더적 독해를 위한 의미있는 단서를 제공해준다. 이들 소설에서 유학과 이민은 여성에게 젠더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건으로 재의미화되고, 파리와 뉴욕은 거주와 이주 사이의 경계 공간으로 재표상된다. 나아가 동일성과 타자성, 집과 집 없음의 고정된 위치 사이를 진동하며 경계를 넘어서는 여성의 탈경계적 공간 의식을 형상화함으로써 여성이 모든 장소에서 이탈하는 탈장소성을 실천하는 존재란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이는 여성을 유목민이라는 새로운 이산 주체로 호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젠더 공간과 젠더 정체성을 사유하는 설득력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손장순, 「우울한 파리」, 『현대문학』 1976.1.
 손장순, 「빈 청사진」, 『신동아』, 1976.3.
 손장순, 「거대한 물결」, 『월간문학』 1980.1.
 손장순, 「도시일기」, 『현대문학』 1983.9.
 『손장순 문학전집』 12, 13, 푸른사상사, 2009.
 김지원, 「한밤 나그네」, 『김지원 소설선집』 2, 작가정신, 2014.
 김지원, 「폭설」, 『세대』, 1979.
 김지원, 「잠과 꿈」, 『김지원 소설선집』 1, 작가정신, 2014.
 김지원, 「지나갈 어느날」, 『문예중앙』, 1984.
 『김지원 소설 선집』 1-3, 작가정신, 2014.

2. 단행본

- 민경희, 『미국 이민의 역사 이론과 실제』, 개신, 2008, 13, 237, 246-247쪽.
-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고려대출판부, 2004, 200쪽.
- 최 협, 『다민족사회, 소수민족, 코리안 아메리칸』, 전남대학교출판부, 2011, 212-213쪽.
- 나카무라 유지로, 『토포스: 장소의 철학』, 박철은 역, 그린, 2012, 30쪽.
- 린다 맥도웰, 『젠더, 정체성, 장소』, 여성과공간연구회 역, 한울, 2010, 354쪽.
- 에드워드 랠프,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 · 김현주 · 심승희 역, 논형, 2005, 25쪽.
- 질리언 로즈, 『페미니즘과 지리학』, 정현주 역, 한길사, 2011, 339-349쪽.

3. 논문

- 김덕현, 「장소와 장소상실, 그리고 지리적 감수성」, 『배달말』 43, 2008, 1-20쪽.
- 김영모, 「해외유학과 신엘리트 등장」, 『아카데미논총』 Vol.13 No 1, 1985, 160-180쪽.
- 배은경, 「출산통제와 페미니스트 정치」, 『모성의 담론과 현실』, 심영희 · 정진성 · 윤정로 편, 나남, 1999, 137-166쪽.
- 이명수, 「존재의 공간과 로컬리티」, 『공간의 사유와 공간이론의 사회적 전유』, 류지석 편, 소명, 2013, 111-133쪽.
- 이선미, 「1960년대 여성지식인의 ‘자유’담론과 미국」, 『현대문학의 연구』 29, 2006, 417-452쪽.
- 이선미, 「미국이민 서사의 ‘고향’ 표상과 ‘민족’ 담론의 관계」, 『상허학보』 20, 2007, 443-483쪽.
- 이승은, 「초국가적 의식과 여성 공간」, 『미국이민소설의 초국가적 역동성』, 김민정 외 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1, 107-131쪽.
- 장성규, 「프랑스 문학사상 수용과 손장순 문학」, 방민호 외, 『아프레게르와 손장순 문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82-102쪽.
- 장세용, 「미셸 드 세르토의 공간이론」, 『공간의 사유와 공간이론의 사회적

전유』, 류지석 편, 소명, 2013, 54-77쪽.

전소영, 「‘유학생’ 표상, 착종된 현대의 투시도-손장순의 1970~1980년대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아프레게르와 손장순 문학』, 방민호 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328-352쪽.

최기숙, 「교육 주제로서의 여성과 서구 유학의 문제」, 『여성문학연구』 12, 2004, 95-130쪽.

최윤영, 「초국가적 이산 가정과 여성」, 『미국이민소설의 초국가적 역동성』, 김민정 외 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1, 257-276쪽.

탁선호, 「뉴욕과 뉴욕커에 대한 이야기들」, 『인물과 사상』, Vol.137, 2009, 104-120쪽.

홍정은, 「폐쇄적 자기인식과 의식의 공간화」, 『알마덴』, 동아출판사, 1988, 358-363쪽.

Abstract

Woman's Overseas Dwelling Experience and Beyond Boundaries of Space Perception

Lim, Jung-Youn

This thesis aims to understand how women perceive spaces as investigating the women's overseas dwelling experience in the 1970s and the 1980s. The study focused on novels written by Jang-sun Son and Ji-won Kim and analyzed how placeness of these cities, Paris and New York, and residential types such as studying abroad and immigration would get combined with each other.

The novel by Jang-sun Son breaks these images of Paris, freedom and generosity, into pieces and re-produces Paris as a city of illusion. Son's going to Paris to study gave her a chance to enter the inside of Paris and dig into the hidden and deep side of the city. As making use of her being a 'woman student from South Korea', not only does she deal with contradictions and repressions of the Korean society but also describes paternalistic violence internalized in the women. The women are considered an in-between with a 'Parisian' body but 'Korean' thinking, and they do not belong to any of France or South Korea but dispart. Paris is understood as 'space of drift' and there, the women realize these differences from the West and fragmentize the core.

The background of the novel by Ji-won Kim is New York, and the novel talks about identities and self-awareness of female

immigrants. Troubles that the women in Kim's novel go through are basically caused by their failures with 'building-up relationships'. Men are considered selfish and paternalistic while the women dream of stable lives through intimate relationships with the men. The women confirm otherness through their failures with building-up relationships and there, New York, the signifier, becomes a symbol of everyday insignificance. As far as the women understand, New York is 'space of absence' filled with silence, deportation, deficiency and loss.

Key words : Overseas Dwelling, Studying Abroad, Immigration, Space of gender,
Space of drift, Space of absence, Beyond Boundaries, Displacement

■ 이 논문은 2014년 11월 13일에 접수되어, 2014년 12월 5일에 심사 완료되고, 2014년 12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